

# “불안한 한빛 1·3·4호기 차라리 폐쇄해야”

### 범시민 비상회의 발대식 “안전 확보 없는 땀질식 처방 그만” 종교계·노동·여성·탈핵단체 등 참여 원전 재가동 방침 반발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열광 한빛 발전소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땀질식 처방’만을 거듭한다면 차라리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무진관에서 ‘영광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 (이하 비상회의)가 발대식을 개최했다.

비상회의에는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탈핵단체 외에도 광주지역 종교계(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노동, 여성, 정당 등 여러 분야의 단체가 참여한

다.

비상회의는 지난 5월 발생한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외벽 공극 200여개 발견, 격납건물 철관부식, 최근 10개월간 발생한 6차례 화재사고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결성됐으며, 국민의 안전 확보 보다는 가동을 우선시 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잘못된 업무 행태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상회의는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된 한빛원전 1·3·4호기의 완전 폐쇄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한

빛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에 대해 지난 9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께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극 발견과 함께 격납건물 관통부 공기누설이 확인된 3호기와 최대 깊이 1.5m에 달하는 구멍이 발견된 4호기도 조기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상회의측은 원전 폐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서명 운동·캠페인을 비롯한 국회 토론회 개최, 9월 말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연계한 문제 제기 등 다양한 가동 반대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난 2월부터 감사원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한빛원전 공익감사 각하처분 취소 행정소송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전남 탈핵단체들은 지난해 7월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같은 해 10

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간합동조사단’이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이에 탈핵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장을 피고로 하는 ‘한빛원전 공익감사 청구 각하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청구 각하 결정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인격권·생명권·건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종필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활동가는 “한빛원전 안전확보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안 부실 정황은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노후화에 부실시공까지 명백한데도, 발전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핵발전소 가동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경사로 이끼에 미끄러져 녹동 앞바다에 빠진 母子 행인 신고로 해경이 구조

19일 오후 2시 20분께 고흥군 도화면 녹동 수협 위판장 인근 항구에서 이모(여·43)씨와 그의 아들 김모(7)군이 이끼에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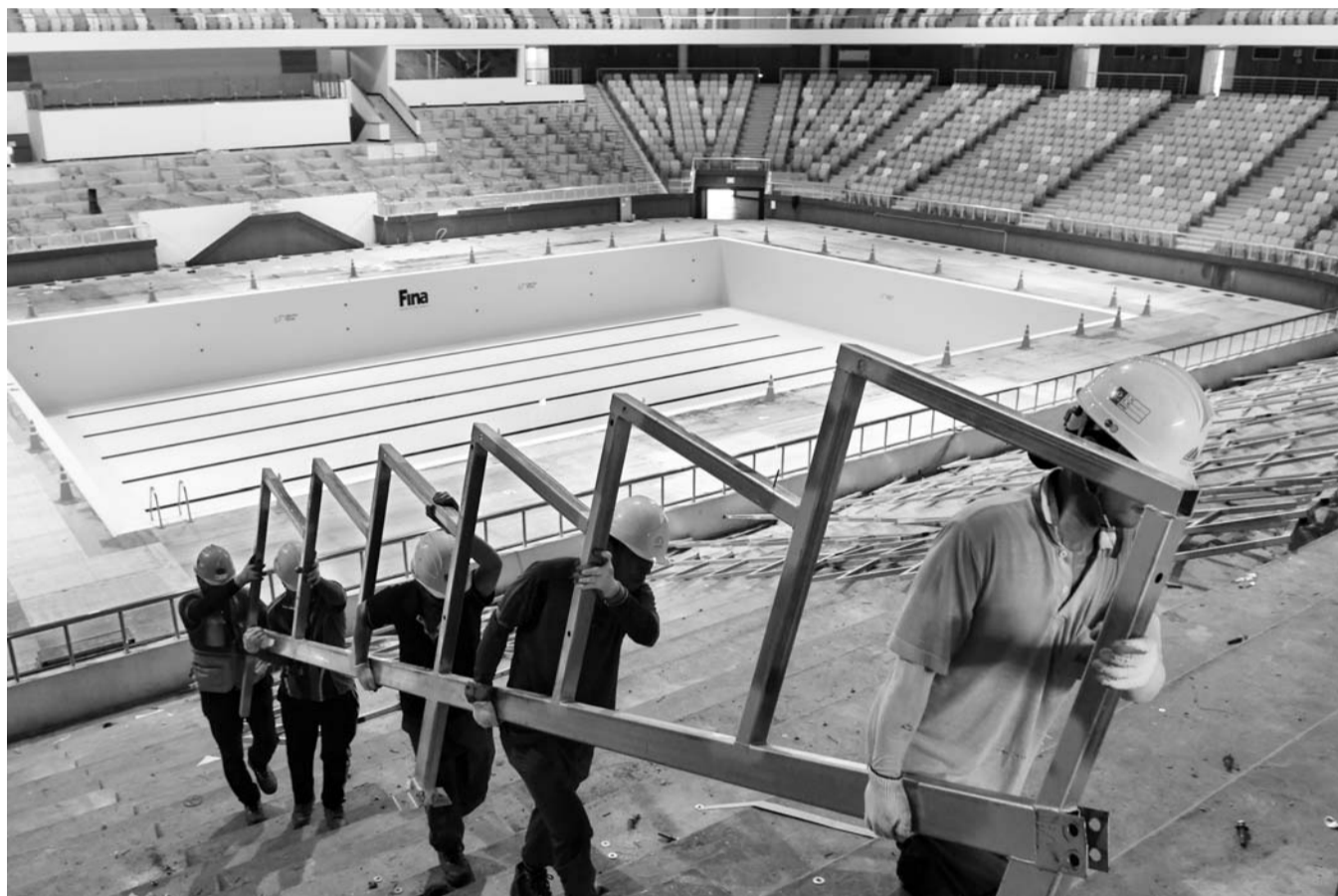
이씨 모자는 2분만에 무사히 구조됐으며,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여수해경 조사결과, 이씨 가족은 여름 휴가를 즐기 위해 인천에서 고흥 녹동항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날 이씨는 아들 김군을 안고 항구를 거닐던 중 선박이 접안하는 경사로의 이끼에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알림판이 설치된 곳이나 방파제, 갯바위 등은 이끼나 해초류 등 때문에 미끄럽고,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그동안 수고했다...철거되는 수영장  
19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마스터즈대회 아티스틱 수영장이 철거되고 있다. 염주체육관은 기존 종합경기장으로 복귀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법원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 재심사 공정성 문제”

항소심서 재심 합격자 처분 취소  
전남대학교가 국악학과 교수공채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시행한 데 대해 항소심 법원이 재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교원 공채 면접을 중단한 것을 취소

해달라고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대측의 면접 중단 및 재심 합격자 확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으나, 면접

하루 전인 지난해 1월 3일 대학 측으로부터 불공정 시비가 있다며 면접 연기를 통보받았다.

전공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B씨가 반발하자, 대학 측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심사부터 재심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재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는 B씨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공정관리위가 외형상 지원자별 점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토대

로 재량 범위 내에서 사안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심사위원 5인 중 2인이 A씨에게 만점을 줬고 2, 3등에게는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1등과 2~3등의 격차를 검토해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다른 심사위원 2명도 A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담합이라거나 편향된 배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주 여인숙 화재...노인 3명 참변

#### 폐지 수거로 생계...안타까움

19일 새벽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객실에 있던 투숙객 3명이 숨졌다. 불은 건물 76㎡를 모두 태운 뒤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목격자는 “새벽에 자는데 ‘뽕’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었다. 가스통이 폭발한 줄 알고 나와보니 골목에 있는 여인숙에 불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객실 11곳 중 3곳에서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70~80대 노인도 추정되는 시신 3구를 각각 발견했다.

사망자는 여인숙을 관리하는 A(여·82)씨와 투숙객 2명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숨진 투숙객 2명은 매일 일

정 금액을 여인숙에 지불하고 사는 장기 투숙자들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투숙객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우며 생계를 꾸려왔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한 주민은 “여인숙 앞에는 항상 폐자나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며 “(숨진 투숙객들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다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관은 1972년 지어져 시설이 매우 낡았고, 화재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객실 등에 있던 부탄가스통이 화재로 터지면서 폭발을 이 크게 들린 것 같다”며 “현재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 허리 통증 80대 독초 ‘초오’ 끊어 먹고 사망

80대 여성이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끊어 먹은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여·81)씨가 초오를 끊어 먹은 뒤, 구토 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한약제인 초오를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오는 독성이 많은 열성(熱性) 약재로 심복통·관절통 등의 증상에 쓰이며 조선 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이용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여성 2명 검거

고객 아르바이트 구인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여성 두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한 김모(여·53)씨와 주모(여·38)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현금 5000만 원을 대신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해외명품 브랜드 직수입 업체의 탈세를 도우며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김씨는 피해자 우모(43)씨 등 4명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50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인출해 주씨에게 건넸으며, 이 돈을 주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했다. 이들은 불법행위를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유니클로에서 꼭 사야 합니까”...매장서 구매 만류한 60대



○...최근불매운동의 타깃이 되고 있는 일본 의류업체인 ‘유니클로’ 매장 내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구매를 만류한 60대가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서행.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64)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대전시 서구 유니클로 매장으로 들어가 한

고객에게 “일본제품인데 꼭 사야 하나”고 말했다가 말다툼까지 하게 됐다는 것.

○...A씨는 유니클로측의 영업방해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으로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대변 모 시민단체 대표로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군 남면 모후산 유마리 대지 등 1021㎡ 조용한 생활 적합 4500만원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수양생활 최적 45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400여주 84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500만원
- 함평군 월아면 예덕리 대지 235㎡ 전원생활 적합 2300만원

### 투자·매도·교환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위조경종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은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금실입 다용도 가능 은행 11억 교환 22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입아·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평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딩 410㎡ 건평 613㎡ 인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14억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999원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계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특급물건

- 요양시설 최고 영광병성면 땅 5416㎡ 1층 477㎡ 중증기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남평읍 드들강 모뎀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등 적합 17억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층 주거지 담 4413㎡ 축합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신안군 압제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은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2억
- 영암군 혁신면 연성감점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차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

1566-9988

##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point 2 4 6 3 7 1 2 8 0  
J3 6point 4 6 2 8 1 0 9 7 3  
J2 5point 5 7 6 2 1 4 3 0 2  
J1 4point 8 3 1 7 9 0 0 2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